

이원재 1차관, “공공분양 50만호, 내집마련 주거사다리”

- 27일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서 청년·서민 주거복지 지원강화 필요성 강조 -

- 이원재 제1차관은 10월 27일(목) (사)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(회장 한만희)에서 주최한 CEO조찬포럼 특강 연사로 참석하여, 청년·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 - 이 차관은 「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」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“그간 임대주택 중심 정책을 개선해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과 생애설계 기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”면서, “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해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 “특히, 최근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, 안정적인 저금리로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 전용모기지도 함께 제공하여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자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”면서,
 - “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, 우수입지의 시범단지에 대한 사전청약도 연내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한편, 이번 포럼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, 한국리츠협회 임원진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으며,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금융산업의 역할과 공공주택 50만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.

2022. 10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